

오늘의 주요 언론보도

- 2026년 5월 21일 -



주요 기사내용		해당부서	보도매체
○	제주 애월읍4-H본부, 벚꽃축제 바자회 수익금으로 이웃에 온기 전해-4면(2026.05.15.)	제주농업기술센터	한국4-H신문
○	제주도농업기술원 스마트팜 교육-9면	기술지원조정과	제민일보
○	단비 머금은 호박밭-1면	-	제민일보
○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기관 선정-7면	-	제주매일
○	농산물 포장재비 지원 ‘경영부담 완화’ -15면	-	제주매일
○	토양개량제 공급 “지력 유지·보전 추진” -15면	-	제주매일
○	스마트공동물류센터 올해 하반기부터 가동-3면	-	삼다일보
○	제주농민회, 농지조사 관련 임차농 피해 신고센터 운영-6면	-	한라일보

(한국4-H신문: 2026년 5월 15일)

○ 제주 애월읍4-H본부, 벚꽃축제 바자회 수익금으로 이웃에 온기 전해-4면

제주 애월읍4-H본부, 벚꽃축제 바자회 수익금으로 이웃에 온기 전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4-H본부(회장 고명열)는 지난 4월 8일 지역 나눔 공간인 '애월 고평'에 바자회를 통해 마련한 물품을 전달했다.<사진>

'제8회 애월읍 벚꽃축제'에서 추진한 바자회는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물품 기부로 진행됐으며, 총 102만4000원의 수익금을 조성했다.

이번 바자회의 수익금은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생필품 구입에 사용돼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전달식에서 김태현 애월읍장은 "지역사회를 위한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준 4-H본부 회원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고명열 애월읍4-H본부 회장은 "바자회에 함께해 준 본부 회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봉사과 나눔 활동을 꾸준히



이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5. 15. 한국4-H신문 4면 제주특별자치도 애월읍4-H본부

(제민일보: 2026년 5월 21일)

○ 제주도농업기술원 스마트팜 교육-9면



제주도농업기술원 스마트팜 교육

제주도 농업기술원(원장 김태균)은 19일 본원 대강당에서 교육생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ICT 활용 스마트팜 기술 습득 교육’을 개강했다.

이날 교육은 교육생 기술 수준 사전진단을 실시했으며 △스마트팜 구성과 작동원리 △ 저비용 스마트팜 구축 사례 등을 추진했다.

5. 21.
제민일보 9

(제민일보: 2026년 5월 21일)

○ 단비 머금은 호박밭-1면



단비 머금은 호박밭

만물이 점차 자라 들판이 차오르기 시작한다는 소만(小滿)을 하루 앞둔 20일 제주시 애월읍 에는 간간이 비가 내린 가운데 한 농부가 호박에 비료를 주며 농사를 준비하고 있다. 김봉철 기자

(제주매일: 2026년 5월 21일)

○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기관 선정-7면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기관 선정

서귀포의료원“예방 중심 지역 공공의료 강화”

서귀포시는 20일 서귀포의료원(원장 이윤복)이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은 농작업 과정에서 반복되는 근골격계 질환과 농약 노출, 심뇌혈관계 질환 등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기 위한 국가 지원사업이다.

검진 대상은 서귀포시에 거주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51~80세 사이의 짝수년도 출생 여성농업인으로 올해 서귀포시 배정 인원은 1180명이다. 검사비의 90%는 국비와 지자체 비용으로 지원돼 본인은 10%만 부담하면 된다.

서귀포의료원은 이번 여성농업인 특수검진기관 지정 및 운영을 통해 지역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건강검진과 전문의 진료 및 상담 등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5. 21. 제주시매일 7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신청은 농업e



지 모바일 어플이나 누리집, 읍면동 및 시청을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이윤복 서귀포의료원장은 “이번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기관 선정을 계기로 지역 여성농업인의 건강 증진과 예방 중심 공공의료 강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고두성 기자

(제주매일: 2026년 5월 21일)

○ 농산물 포장재비 지원 ‘경영부담 완화’ -15면

농산물 포장재비 지원 ‘경영부담 완화’

제주시, 27개 단체에 포장재 구입비 50% 지원

농가들의 농가 경영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산물 포장재 비용이 지원된다.

제주시는 “제주산 농산물의 안정적인 유통과 농업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26년 농산물 포장재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농산물 직거래와 온라인 판매가 확대되면서 소비자들은 농산물의 품질뿐만 아니라 포장 디자인과 상품성까지 고려해 구매를 결정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

이에 제주시는 생산자단체와 영농조합법인 등을 대상으로 제주산 신선 농산물 유통에 필요한 20kg 이하 규격의 골판지·플라스틱 상자 등 포장재 구입비의 50%를 지원하고 있다.

5. 21. 제주시는 총 12억원(보조 50%, 자담

50%) 규모로 지난 3월 지방보조금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 27개소를 확정했다.

제주시는 현재 24개소에 보조금을 교부했다. 나머지 대상도 오는 6월 말까지 보조금 교부를 마무리 해 사업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제주시는 이번 사업으로 농가의 물류·포장 비용 부담을 완화해 상품성을 높이는 한편 브랜드 경쟁력 강화와 직거래 확대 기반 마련 등 제주 농산물의 유통 경쟁력을 한층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포장재는 농산물의 품질과 신뢰를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중요한 요소”라며 “제주 농산물의 상품성과 직거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기봉 기자

(제주매일: 2026년 5월 21일)

○ 토양개량제 공급 “지력 유지·보전 추진” -15면

토양개량제 공급 “지력 유지·보전 추진”

제주시, 이달 하순부터...공동 살포 지원사업도

제주시는 토양개량을 통한 지력 유지·보전과 친환경 농업 기반 조성을 위해 ‘토양개량제 공급과 공동살포 지원’을 본격 추진한다.

토양개량제 공급은 유효 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와 산성토양에 규산질, 석회고토, 패화석 등을 공급해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유지·보전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 사업은 3년 1주기로 추진된다. 무상으로 공급된다.

올해 공급 대상 지역은 애월읍과 조천읍, 한경면이다. 제주시는 약 11억27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2150농가에 총 4500여^{5.21}의 토양개량제를 5월 하순부터 무상 공급한다. 15

2027년에는 한림읍, 동지역, 우도면을 대상으로, 2028년에는 구좌읍을 대상으로 토양개량제가 공급된다.

고령화로 토양개량제 살포 작업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위해 지역농협 공동살포단을 활용한 공동살포 지원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양정화 친환경농정과장은 “토양개량제 공급은 농업 생산성 향상과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 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직접 살포가 어려운 농가를 위한 공동살포 지원도 확대해 농업인들이 건강한 토양에서 안정적으로 영농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기봉 기자

(삼다일보: 2026년 5월 21일)

○ 스마트공동물류센터 올해 하반기부터 가동-3면

스마트공동물류센터 올해 하반기부터 가동

아라2동 조성, 공정률 90% 수준...영세 제조·가공업체 물류비 완화

올 하반기부터 제주스마트공동물류센터가 운영에 들어갈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제주시 아라2동 266번지에 들어서는 스마트공동물류센터 조성 현장을 방문했다고 20일 밝혔다.

스마트공동물류센터(이하 센터)는 도내 중소제조업체와 농수축산 가공업체가 함께 쓸 수 있는 공간으로, 자체 창고를 갖추기 어려운 영세 제조·가공업체가 보관부터 출하까지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센터는 국비 92억원과 도비 166억원 등 총사업비 258억원이 투입돼, 부지 면적 1만4801㎡·연면적 5600㎡(지하 1층·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된다. 현재 공정률은 90% 수준이다. 현재 공정률은 90% 수준으로, 올 하반기 운영 개시를 목표로 막바지 공사를 진행 중이다.

1층은 저온창고, 2층은 상온창고로 구성되며, 관리사무실과 휴게실 등이 함께 들어선다. 공산품과 가공식품, 농산물 등 5.21, 삼다일보 수 있으며 수산물과 축산물 원

물은 보관 대상에서 제외된다.

센터는 정보통신기술(ICT)을 결합한 '스마트물류' 방식으로 운영된다. 운영은 공기관 대행 방식으로 제주경제통상진흥원이 맡는다.

입출고와 재고를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창고관리시스템(WMS)과 차량 배차·운송 경로를 최적화하는 운송관리시스템(TMS)이 도입되고, 전동지게차와 전동 파렛트 트럭 등 친환경 이송 장비도 갖춰진다.

오 지사는 “도내 중소기업과 농수축산 가공업체가 자체 창고 없이도 제품을 보관·출하할 수 있도록 공동 물류 거점을 만들었다”며 “공유물류 플랫폼 ‘모당’과 연계해 이용 기업의 물류비와 운영 부담을 함께 줄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을 최우선으로 준공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고 행정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며 “특히 물류센터가 준공 이후 즉시 가동될 수 있도록 현장 사전 수요조사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동건 기자 kdg@samdailbo.com

(한라일보: 2026년 5월 21일)

○ 제주농민회, 농지조사 관련 임차농 피해 신고센터 운영-6면

제주농민회, 농지조사 관련 임차농 피해 신고센터 운영

제주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농지 전수조사가 시작된 가운데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이하 전농 제주도연맹)은 실경작자(임차농) 보호를 위해 오는 22일부터 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전농 제주도연맹은 도내 부재지주 농지가 약 70% 안팎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전농 제주도연맹에 따르면 농지 전수조사가 발표된 이후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거나 임차농에게 농지를 비워줄 것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또 일부에서는 나무를 심어 위장 영농 형태로 행정의 조사를 피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전농 제주도연맹은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제주 농업이 붕괴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라일보 6 문미숙기자 ms@ihalla.com